

加工貿易 獨占企業의 內需效果

— 換率, 原資材價格變化와 관련하여 —

姜 哲 圭*

〈目 次〉

- I. 序 言
- II. 加工貿易 獨占企業의 定義 및 假定
- III. 差別價格制 獨占企業의 模型
- IV. 換率 및 輸入中間財 價格變化의 內需效果
- V. 政策示唆點
- 參 考 文 獻

I. 序 言

市場規模가 확대되면 될수록 당해 産業의 進入障壁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의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가 지속된다고 할 때 市場規模의 확대는 潛在企業의 市場參與 여지를 넓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설비 및 中間財를 海外로부터 輸入하여 商品을 加工·組立한 다음 이를 다시 海外에 輸出하는 資本循環이 지배적인 加工貿易後進經濟¹⁾에 있어서는 이러한 市場規模擴大에 의한 進入障壁緩和效果가 크게 제약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加工貿易後進經濟에서는 大規模組立·加工型 獨寡占企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 獨寡占企業들은 利潤을 極大化하기 위해 海外市場과 內需市場의 兩市場을 향하여 생산한다. 왜냐하면 兩市場에서의 需要의 彈力性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價格으로 市場에 임함으로써 利潤極大化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탄력성이 높은 海外市場에 대한 輸出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 총생산규모는 늘어난다. 그러나 內需市場도 반드시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內需市場도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輸出擴大는 곧 內需市場의 확대를 의미하며 그것은 동시에 市場進入障壁의 완화를 의미할 것이다. 加工貿易後進經濟에 있어서 內需市場의 확대가

*韓國産業研究院

1) 姜哲圭, 張錫仁(1987), 第II章 참조.

輸出擴大速度에 따르지 못하고 제약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첫째는 輸出擴大가 진전되면 될수록 輸出商品은 先進國型으로 發展하여 先進國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後進國 소비자의 수요패턴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생기게 된다. 國內의 소득수준이 先進國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그 격차를 줄여 나가면 輸出商品의 內需市場 판매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절대적 격차가 크거나 소득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된다. 하더라도 불평등분배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수요패턴은 先進國間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²⁾ 이 경우에 先進國型 輸出商品에 대한 國內需要는 價格과 所得에 非彈力的으로 되기 쉽다. 둘째는 獨寡占利潤이 지속되는 한 소비자의 소득향상이 輸出增加速度에 비해 제한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즉 獨寡占企業에 의한 內需 및 海外市場에 대한 差別價格制(內需市場에 대하여는 獨占價格을, 海外市場에 대하여는 競爭市場價格을 적용하는 소위 덤핑모형에 의한 差別價格制)가 지속되면 獨寡占價格이 형성되는 內需市場의 확대는 제약을 받는 반면 競爭市場價格이 적용되는 海外市場에 대한 輸出은 확대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관계를 加工貿易型經濟下의 代表的 企業形態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加工貿易獨占企業의 差別價格模型에 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모형을 통하여 需要의 彈力性이 다른 內外市場에 差別價格制를 실시하는 獨占企業의 경우 換率의 變化, 輸入中間財 또는 國際原資財價格의 變化 등 海外로부터 價格變數의 變化가 발생할 때, 輸出과 內需市場의 擴大에는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本稿의 目的이다.

이를 위하여 第1節에서는 加工貿易獨占企業을 定義하고 몇가지 필요한 假定을 하였으며 第2節에서는 加工貿易獨占企業의 差別價格模型을 만들어 內需型 獨占企業과 비교하였고, 第3節에서는 換率 및 中間財 價格變化에 따른 內需效果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政策示唆點은 마지막 第4節에서 다루었다.

II. 加工貿易獨占企業의 定義 및 假定

本稿에서 다루려고 하는 企業은 加工貿易後進經濟의 전형적인 기업으로서 海外로부터 資本財와 中間財를 수입하여 國內勞動力을 활용, 完製品을 生産하여 이를 海外市場과 國內市場에 差別價格으로 판매하는 獨占企業이다.

(定義 1)

2) 소득과 商品需要의 質의 差異에 대하여는 Grubel and Lloyd(1975), pp. 98-100 참조.

加工貿易後進經濟란 生産에 必要한 資本財와 中間財 등 生産要素를 外國으로부터 輸入하여 이를 組立·加工하여 生産한 完製品 또는 半製品을 다시 外國에 輸出하는 形態의 資本循環이 支配的인 經濟이다.

〈定義 2〉

加工貿易獨占企業이란 加工貿易後進經濟의 代表的인 企業으로서 海外로부터 輸入한 資本財, 中間財와 國內에서 雇傭한 勞動力을 活用하여 生産한 完製品 또는 半製品을 海外市場과 國內市場에 差別價格으로 판매하는 獨占企業이다.

〈定義 3〉

輸出을 하지 않고 內需에만 의존하는 獨占企業을 內需獨占企業이라 定義한다.

加工貿易獨占企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假定한다.

〈假定〉

A1: 內需와 外需市場에 差別價格으로 販賣하는 加工貿易獨占企業이 存在한다.

A2: 이 企業은 利潤極大化를 추구하여 內需市場에 대하여는 獨占力을 행사, 獨占價格 P_m 을 設定한다. 다만 輸出量은 世界市場價格에 影響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수준이므로 輸出價格은 世界市場價格 P_w 로 주어졌다.

A3: 費用은 海外中間財의 單位當 輸入費(P_a)와 生産量의 增加函數인 國內費用($C(Q)$)으로 區分된다. 즉, 總費用函數는 $TC(Q) = C(Q) + P_a \cdot Q$ (단, Q 는 生産量)이며 內需獨占企業도 같은 費用函數를 가진다.

Ⅲ. 差別價格制獨占企業의 模型

加工貿易獨占企業은 內需와 輸出로부터 얻는 加重平均利潤을 極大化하려 할 것이다.

加工貿易 獨占企業의 利潤函數 π 는

$$(1) \pi(Q, Q_m) = P_m(Q_m) \cdot Q_m + (Q - Q_m) P_w - (C(Q) + P_a \cdot Q)$$

단, Q = 總生産量, $Q > Q_m$

로 정의된다. 加工貿易獨占企業이 언제나 利潤을 極大化한다고 前提하면 式(1)의 극대화 1次條件(first order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2) \frac{\partial \pi}{\partial Q} = P_w - (C'(Q) + P_a) = 0$$

$$(3) \frac{\partial \pi}{\partial Q_m} = P_m(Q_m) + \frac{\partial P_m}{\partial Q_m} \cdot Q_m - P_w = 0$$

式(2)로부터 이 企業의 均衡生産量 Q^* 는 世界市場價格과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點에서 즉, $P_w = C'(Q) + P_a$ 에서 決定되며, 國內市場을 위한 均衡生産量 Q_m^* 는 式(3)에 의하여 限界收入과 世界市場價格이 일치하는 點 즉,

$$P_m \left(1 - \frac{1}{\eta}\right) = P_w \text{에서 決定된다. 여기서 } \eta = \frac{\partial Q_m}{\partial P_m} \cdot \frac{P_m}{Q_m} \text{으로 定義되는 需要의}$$

價格彈力性이다.

이러한 關係는 <圖 1>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이 企業의 總生産量 Q^* 는 P_w 와 限界費用 MC 가 일치하는 點에서 決定되고 均衡內需生産量 Q_m^* 는 P_w 와 限界收入 MR 이 일치하는 點에서 決定된다.

이때 均衡內需生産量 Q_m^* 는 폐쇄된 國內市場에서의 獨占企業의 生産量 Q_m 보다 적으며 均衡價格 P_m^* 은 P_m 보다 높다. 왜냐하면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 獨占模型에서 獨占企業의 均衡生産량은 $MR = MC$ 에서 決定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命題가 도출된다.

(命題 1)

假定 A1~A3를 만족하는 靜態模型下에서 獨占企業의 均衡總生産量 Q^* 는 輸出을 하지 않는 內需獨占企業의 경우보다 크거나 같지만 國內市場均衡生産량 Q_m^* 는 輸出을 하지 않는 內需獨占企業의 경우보다 같거나 작다. 이때의 國內市場 均衡價格은 輸出을 하지 않는 內需獨占企業의 경우보다 높거나 같다.

(證 明)

利潤極大化 1次條件인 式(2)와 式(3)으로부터 差別價格 獨占企業 (A)의 內需供給量 Q_m^* 는

$$P_m(Q_m^*) \left(1 - \frac{1}{\eta}\right) = C'(Q^*) + P_a = P_w \text{가 됨.}$$

그러나 內需에만 의존하는 獨占企業(B)이라면 그 均衡供給量 Q_m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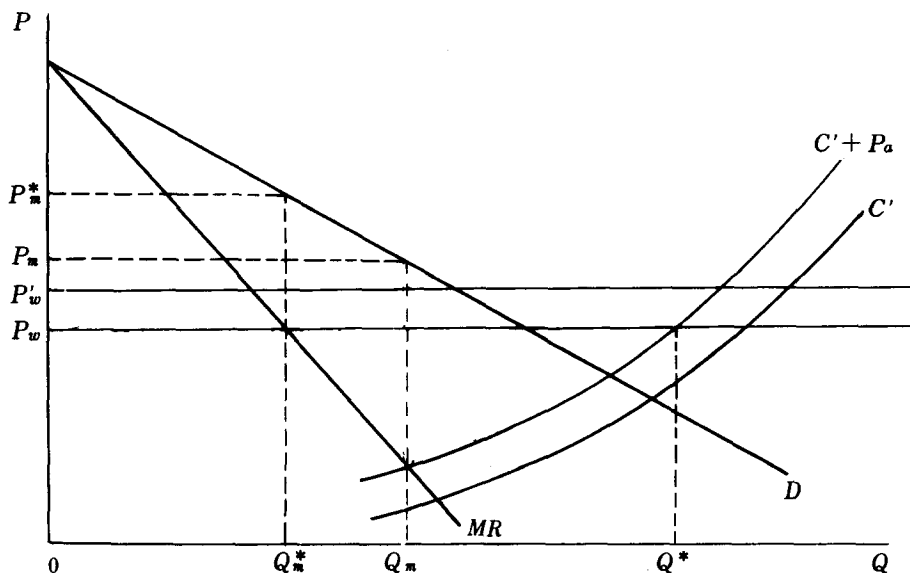
$$P_m(Q_m) \left(1 - \frac{1}{\eta}\right) = C'(Q_m) + P_a \text{를 만족시켜야 함.}$$

限界費用曲線 $C'(Q)$ 는 增加函數이며 A1에 의해 差別價格獨占企業 (A)의 경우 $C'(Q^*) + P_a = P_w$ 이나 內需獨占企業(B)의 경우는

$$C'(Q_m) + P_a \leq P_w \text{이므로}$$

$$C'(Q^*) > C'(Q_m) \text{이며, 따라서 } Q^* > Q_m \text{이 성립함.}$$

〈圖-1〉 差別價格獨占企業의 輸出 및 內需均衡



또한 $MR(Q_m^*) = P_w \geq MP(Q_m)$, 즉

$$P_m(Q_m^*) \left(1 - \frac{1}{\eta}\right) \text{이므로 } Q_m^* < Q_m \text{임.}$$

이에 따라 $Q_m^* \leq Q_m \leq Q^*$ 이고,

따라서 $P_m^*(Q_m^*) \geq P_m(Q_m) \geq P_w(Q^*)$ 임. (증명 끝)

이 命題는 靜態的 模型下에서 정당한 것이다. 動態的으로는 $Q^* \geq Q_m$ 이므로 需要曲線의 上방이동이 加工貿易獨占과 內需獨占 중 어느 경우에 더욱 크게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所得의 增加幅과 需要의 所得彈力性에 左右될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다만 輸出獨占企業에 의한 所得增加가 內需擴大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 결과 輸出增大에 따라 先進國型 商品이 계속 開發될 경우, 國內需要의 增加幅은 相對的으로 위축 될 수 있으며, 內需가 충분히 增加하는 경우라도 差別價格制에 의한 國內消費者의 不利益은 持續된다는 點을 指摘하고 싶다.

IV. 換率 및 輸入中間財 價格變化의 內需效果

이 模型에서 보다 興味있는 結果는 만약 換率變動 등에 의한 輸出商品의 相對價格變

化 또는 海外로부터 導入되는 中間財, 原資材 등의 價格變化가 內需市場規模 및 價格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데 있다.

먼저 換率變動 등에 의하여 이 企業의 輸出商品에 대한 世界需要가 增加한 경우를 살펴보자.

(命題 2)

만약 世界市場價格 P_w 가 上昇하면 輸出增加에 의하여 總生産量 Q^* 는 늘어나는 반면 國內需要는 有效限界收入의 上昇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그 逆도 成立한다.

(證 明)

$$\text{式(2)로부터 } \frac{\partial Q}{\partial P_w} = -\frac{1}{C''} > 0; \text{ 단, } C'' > 0,$$

$$\text{式(3)으로부터 } \frac{\partial Q_m^*}{\partial P_w} = -\frac{-1}{\frac{\partial P_m}{\partial Q_m} \cdot e} < 0; \text{ 단, } e = 1 - \eta > 0$$

$$\frac{\partial P_m}{\partial P_w} = -\frac{-1}{e} > 0 \quad (\text{증명 끝})$$

(命題 2)는 달러貨 弱勢와 같이 換率變動에 의하여 價格競爭力이 好轉될 경우 輸出은 增加하지만 內需市場은 오히려 그 絶對量이 위축된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 물론 반대로 換率要因에 의한 價格競爭力의 惡化는 輸出을 減少시키고 內需를 增加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輸出이 없기 때문에 內需市場 規模에 變動이 없는 獨寡占型和 對照를 이룬다.

그러나 換率變動에 의한 輸出擴大는 所得의 增加를 유발하고 所得의 增加는 國內需要의 擴大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國內需要 Q_m 이 國內價格 P_m 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所得 M 의 함수이며 所得 M 은 輸出擴大에 유발되는 이 기업의 總生産量 Q 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편의상 價格과 所得의 함수가 되는 보통의 需要函數를 상정하여 보면 편리하다.

$$(4) \quad Q_m = f(P_m, M(Q)), \text{ 단, } M \text{은 所得}$$

式(4)를 이용하여 加工貿易獨占企業의 利潤函數 $\pi(P_m, Q)$ 를 다시 정리하면 式(1)'이 된다.

$$(1') \quad \pi(P_m, Q) = P_m \cdot Q_m(P_m, M(Q)) + P_w(Q - Q_m(P_m, M(Q))) - (C(Q) + P_a \cdot Q)$$

式(1')의 1次 極大化 條件은 다음과 같다.

$$(2') \quad \frac{\partial \pi}{\partial Q} = (P_m - P_w) \frac{\alpha \cdot Q_m (P_m, M(Q))}{Q} + P_w - (C'(Q) + P_a) = 0$$

$$(3') \quad \frac{\partial \pi}{\partial Q_m} = P_m (1 - \frac{1}{\eta}) - P_w = 0$$

$$\text{단, } \alpha = \frac{\partial Q_m}{\partial M} \cdot \frac{M}{Q_m} \cdot \frac{\partial M}{\partial Q} \cdot \frac{Q}{M} = \epsilon^M \cdot \epsilon^Q$$

ϵ^M = 내수의 소득탄력성, ϵ^Q = 소득의 생산량 탄력성.

所得效果까지를 감안할 경우(命題 2)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命題 2')

世界市場價格 P_w 가上昇할 경우 만약 $1 - \alpha \geq 0$ 이면 輸出增加에 의하여 總生産量 Q^* 는 늘어나는 반면 $1 - \alpha\theta \geq 0$ 에 따라 國內需要는 줄어들거나 같거나 늘어난다. 그 逆도 성립한다.

(證 明)

式(2')로부터

$$\frac{\partial Q}{\partial P_w} = \frac{1 - \alpha\theta}{-C'' - \frac{(P_m - P_w) \alpha \cdot Q_m}{Q^2} (1 - \alpha)} \quad \text{단, } \theta = \frac{Q_m}{Q} \text{은 內需比率}$$

$$\text{만약 } 1 - \alpha \geq 0 \text{이면 } \frac{\partial Q}{\partial P_w} > 0$$

$$1 - \alpha < 0 \text{이라도 분자가 마이너스가 되면 } \frac{\partial Q}{\partial P_w} > 0 \text{임.}$$

$$\frac{\partial Q_m}{\partial P_w} = -\frac{Q(1 - \alpha\theta)}{(P_m - P_w)\alpha} \geq 0 \text{ iff } 1 - \alpha \cdot \theta \geq 0. \quad (\text{증명 끝})$$

所得效果를 감안한 경우라도 所得彈力性(ϵ^M)과 生産增加의 所得에의 반영정도, 그리고 內需比率 θ 의 크기에 따라 內需擴大效果는 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θ 가 假定 A1에 의하여 1보다 작고 보통재의 경우 所得彈力性 ϵ^M 은 1보다 작거나 같으며 獨占下에서 기업의 生産量增加가 消費者의 所得에 反映되는 정도가 1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에 $1 - \alpha\theta > 0$ 일 확률은 매우 높다.

內需比率 θ 가 1에 가까우며 所得彈力性이 아주 높은 우월재의 경우에는 $1 - \alpha\theta < 0$ 이 되어 內需擴大가 가능하다.

價格競爭力이 惡化되어 輸出減少와 內需增加의 效果가 나타나는 경우 一定水準의 輸出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換率의 持續의 平價切下 등으로 對應하거나 輸出補助金支給,

賃金上昇率抑制 등 費用節減을 통한 輸出擴大를 圖謀하여 輸出減少效果를 最大限으로 줄이는 努力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費用節減을 통한 輸出擴大效果는 內需變動에는 影響을 주지 않는다.

다음에 海外로부터의 中間財輸入價格이上昇하는 경우에 輸出과 內需에 어떠한 效果가 미치는지는 다음 (命題 3)에 의하여 說明된다.

(命題 3)

만약 海外로부터 導入하는 中間財價格이上昇(下落)하면 輸出의 減少를 통하여 總生産量 Q^* 가 減少(增加)하나 均衡內需量 Q_m^* 는 變化가 없다.

(證 明)

$$\text{式(2)로부터 } \frac{\partial Q^*}{\partial P_a} = -\frac{-1}{C''} < 0; \text{ 단, } C'' > 0$$

$$\text{式(2)로부터 } \frac{\partial Q_m^*}{\partial P_a} = 0 \quad (\text{증명 끝})$$

(命題 3)은 海外中間財價格變化가 輸出의 增減을 초래하지만 一次的으로 內需價格과 內需를 위한 供給에는 影響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輸出이 없는 獨占模型에서는 中間財價格의 下落은 內需價格을 떨어뜨려 內需市場을 增大시키는 效果를 가진다.

만약 종전의 輸出量を 一定水準으로 維持하기 위하여 즉, 總生産量 Q 를 一定水準에 묶어 두기 위하여는 賃金率의 下落 또는 技術革新을 통한 國內生産費의 節減을 圖謀하는 수 밖에 없다. 만약 Q^* 이라면 式(2)에서 $\frac{\partial C'}{\partial P_a} = -\frac{-1}{C''} < 0$ 이기 때문에 P_a 의 增加는 C' 의 節約을 통하여 補償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補助金支給方法도 使用된다. 그러나 補助金支給은 內需市場의 餘他部門의 價格上昇을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는 輸出增大를 위하여 다른 商品의 內需市場價格을 높임으로써 이들 商品의 內需를 줄이는 結果를 낳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所得效果를 감안한 式(1')은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命題가 도출된다.

(命題 3')

만약 海外로부터 導入하는 中間財價格이上昇하면 $1-\alpha > 0$ 인 한 輸出의 減少를 통하여 總生産量 Q^* 가 減少하고 均衡內需量 Q_m^* 은 增加한다. 그 逆도 成立한다.

(證 明)

式(2')로부터

$$\text{만약 } 1-\alpha \geq 0 \text{ 이면 } \frac{\partial Q}{\partial P_a} = -\frac{-1}{C'' - \frac{(P_m - P_w) \alpha Q_m (1-\alpha)}{Q^2}} < 0$$

$1 - \alpha < 0$ 이라도 분모가 마이너스가 되면 역시 $\frac{\partial Q}{\partial P_a} > 0$ 임.

$$\frac{\partial Q_m}{\partial P_a} = - \frac{-Q}{(P_m - P_w)\alpha} > 0 \quad (\text{증명 끝})$$

따라서 P_a 가 증가하면 輸出은 줄어들고 內需市場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油價下落 또는 國際原資材價格의 下落의 경우에는 輸出이 增加하여 總生産量은 增加하지만 內需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以上을 종합하여 보면 加工貿易獨占企業은 달러貨 時勢下落과 같은 換率變動 또는 油價와 같은 國際原資材價格이 下落할 경우 輸出增加를 통하여 總生産量 Q^* 는 增加하나 國內市場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海外市場價格의 上昇 (달러貨 弱勢의 경우와 같이) 또는 生産費 減少(油價下落의 경우와 같이)로 輸出 利潤이 상대적으로 增加함에 따라 國內市場價格은 上昇하고 需要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國內需要가 價格 뿐 아니라 所得의 函數이며 所得은 總生産量 增加에 의존한다고 假定하여도(命題2') 및 (命題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現實的인 條件($1 - \alpha\theta \geq 0$ 또는 $1 - \alpha \geq 0$)下에서 輸出擴大를 통해 總生産量은 增加하여도 內需는 減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V. 政策示唆點

以上の 分析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政策示唆點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國內價格統制政策의 問題이다. 만약 獨占價格을 P_m^* 以下로 統制하면 그 結果는 i) 內需市場擴大 ii) 輸出減少 iii) 總生産量不變이 되어 內需와 輸出의 分配率을 調整하게 된다. 國內獨占價格의 下落으로 國內消費者의 厚生은 增加하나 外換收入의 減少를 초래하게 된다. 政策立案者는 후생과 外換獲得이라는 政策目標의 選擇問題에 直面하게 된다고 하겠다.

둘째, 輸出擴大와 高度成長을 持續하기 위한 政策目標下에서 海外 中間財價格이 上昇한 경우 이 目標을 계속 實現하기 위한 方法으로는 i) 低賃金率 維持, ii) 技術革新 또는, iii) 補助金 支給 등을 통한 限界費用의 節減이 고려될 수 있다. 低賃金率 維持가 어려울 경우에는 技術革新이나 補助金支給 등이 重要 政策代案이 될 수 있으나 外國技術依存經濟의 技術革新은 技術導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外資導入 增加와 內需産業의 희생을 통한 補助支給이 選好될 것이다.

세째, 內需市場의 擴大는 長期的으로 成長을 통한 所得增加와 資材·中間材의 輸入代替를 통한 市場의 競爭擴大에 의한 것이나 短期的으로는 獨占價格統制에 의하여可

能하다. 그러나 獨占價格統制에 의하여 可能하다. 그러나 獨占價格統制는 輸出減少를 초래하여 外換收入減少의 貳에 걸리므로 國際收支赤字下에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獨占이 強力하게 維持되는 政策的 誘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國際收支가 黑字로 轉換될 경우에는 外換收入減少의 制約이 弱化되므로 價格統制政策을 통한 內需擴大策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與件이 형성된다고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이러한 加工貿易型 經濟構造下에서 內需市場의 發達이 그 構造 自体로부터 그리고 輸出指向政策의 結果 制約되므로 新規進入企業이 規模의 經濟利益을 얻기 힘들게 된다. 특히 少數의 既存企業 生産이 內需의 全部와 상당량의 外需를 충당하고 남은 경우, 즉 國內市場이 협소한 경우 新規進入企業이 內需市場을 겨냥하여 規模의 經濟利益을 獲得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결국 新規進入의 유일한 방법은 海外市場을 겨냥한 進入일 것이다. 海外市場을 目標로 當該産業에 進入할 경우 既存企業과의 競爭을 包含하는 國際競爭力을 確保하여야 하므로 기득권을 獲得하고 있는 大企業 또는 그 그룹을 除外한 落後된 國內 技術이나 資本으로는 이의 實現이 거의 不可能하며, 단지 海外 多國籍企業과의 합작 또는 借款導入에 의하지 않고는 市場進入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外國 技術, 外國市場에 크게 依存하는 加工貿易型 經濟構造는 新規企業의 市場進入을 構造的으로 抑制하는 傾向도 있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姜哲圭·張錫仁(1987),『加工貿易과 産業組織』(産業研究院 研究報告書 第111號), 産業研究院.
2. Caves, R.E. and R.W. Jones., (1973), *World Trade and Payments*, Boston, Mass: Little Brown and Co.
3. Grubel, H.G. and P.J. Lloyd., (1975), *Intra-industry Trade*, New York: Wiley.
4. Lancaster, K., (1979), *Variety, Equity, and Efficien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5. Walteson, M., (1984), *Economic Theory of the Indus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